

동서(東西) 자본주의 비교하기*

잔 네더벤 피터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이 글은 지역, 국가, 그리고 사회 구조의 유형에 따른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논한다. 정착이주민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결을 같이 한다. 봉건주의 이후의 사회는 주로 조정(coordinated) 시장경제, 사회적 형태의 자본주의(social forms of capitalism),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변이형들로 나아간다. 이 글의 후반부는 단수로 개념화된 자본주의와 복수로 개념화된 자본주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로 차이 나는 요소를 정리해 내기 위한 다층적 분석법을 제시한다. 이 분석은 자본주의 변이형들 사이에서 불변적인 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의미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조정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주도 시장경제는 모두 시장경제지만, 시장경제가 이해되는 방식은 각각의 변이형들에서 서로 다르다.

주제어 자본주의의 다양성, 사회 구조, 아시아, 다층적 분석

I. 서론

널리 알려진 자본주의의 주요 유형은 북유럽 자본주의, 영미 자본주의,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이에 더해 중국이나 지중해식 자본주의와 같이 여러 변이형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주요 문헌으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oC: varieties of capitalism)이나 비교자본주의(CC: comparative capitalism), 두터운 비즈니스(thick business), 그리고 비교정치경제 등에 관한 문헌들이 있다. VoC 관련 문헌들은 자유 시장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ies), 조정 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그리고 국가주도 시장경제(SME: state-led market economies) 등 널리 인

* 이 글은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 자본주의 회의에서 발표된 기초연설을 발전시킨 것이다.

번역자: 김다진(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표 1 지역/국가에 따른 자본주의 유형

자본주의	지역
LME (자유 시장경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CME (조정 시장경제)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SME (국가주도 시장경제)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혼합	모두 해당

출처: 저자 작성.

표 2 자본주의 유형과 사회 구조

사회 구조	자본주의 유형
정착이주민사회	LME(자유 시장경제)
포스트봉건사회	CME(조정 시장경제), SME(국가주도 시장경제)
후기 혁명사회, 전후와 위기	SME(국가주도 시장경제)

출처: 저자 작성.

정되고 있는 범주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범주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즉 어떠한 제도와 규칙에 따라서 경제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본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지역과 국가로 구분해 본다면 그 도식적인 개요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개요를 놓고 보자면 LME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CME에 속한다는 점이 아주 명백하다. 둘째, LME는 정착이주민사회에서 우세하다. 셋째, 영국처럼 LME와 CME 둘 모두에 속하는 혼합적인 범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는 이주민사회인 캐나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장은 사회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 다음으로 표 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유형과 전형적으로 연관되는 사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개요는 표 2에 나와 있다.

고도로 개인화된 정착이주민사회는 통상적으로 LME 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괴테의 말을 빌리자면 LME와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을 가지고 있다.

LME의 핵심 조정 기제는 계약인데, 이는 정착이주민사회 구조의 핵심 요소다. 법, 재산권, 그리고 계약이 정착이주민사회 구조의 핵심 요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대부분의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LME에서는 이들 요소를 제외하면 사회 조직의 다른 구성 재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그와 같은 계통인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 Macpherson, 1962)는 LME와 잘 어우러진다. LME는 또한 신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 포스트민주주의(Crouch, 2004)와도 잘 결합한다.

포스트봉건(post-feudal)사회는 이주민사회보다 역사가 더 깊고 길다. 따라서 사회 조직과 통합에 대한 많은 구성 요소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요소와 원칙으로는 사회적 태도의 깊숙한 규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 고전적인 문화 전통 등을 확립한 봉건주의, 귀족주의 및 군주제의 유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온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가 그것들 위에 놓여지고 그 사이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포스트봉건사회의 정치경제는 CME 쪽으로 기운다. 짧게 말하자면 그 특징은 정부, 자본, 노동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농부 소비자, 지역단체, 종교단체, 소수자 집단 등)의 원탁회의다. 이러한 사회 구조와 잘 맞는 민주주의 형태로는 사회적 민주주의와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가 있다(Nederveen Pieterse, 2016).

이주민사회는 최근의 형성물이며, LME 혹은 LME의 실질적인 시행은 좀 더 최근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의 형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표준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산업화는 예외 없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SME는 통상적인 사회 구조이며, LME는 신참이다. 또한 전쟁과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사회 구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경제를 주도한다.

국가주의나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국가주의는 절대적 군주제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의 시대는 지방 귀족과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중앙집중화했다. 혁명의 두 가지 유형이라 할 정치 혁명과 사회 혁명은 모두 국가 주도 경제를 야기했다. 사회 혁명은 러시아, 동유럽, 중국, 쿠바 등에서 중앙의 계획된 경제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서 SME으로 변형되었다. 정치 혁명은 터키의 아타튀르크,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의 파시즘처럼 SME를 발생시켰고, 인도(Nehru), 인도네시아(Sukarno), 이란(Mosadeq), 가나(Nkrumah), 튀니지 등과 같

은 대부분의 탈식민 신생 독립국들에서도 SME를 발생시켰다. 또 다른 변이형은 이집트(Nasser), 알제리, 이디오피아, 북한, 기니 등의 사회주의 지향 국가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최근에 SME나 CME-SME 혼합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도식적 설명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좀 더 다듬어져야 한다. 시간에 따른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계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1929년의 주가 폭락과 대공황 이후 미국은 뉴딜이나 포디즘과 같은 국가 개입주의로 선회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과 ‘군사적 케인즈주의’가 등장했다.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전후의 호황은 선진 경제와 개도국에서 케인즈주의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다. 냉전과 그 이후의 패권 전쟁은 미국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특히 군산복합체와 관련 기술, 금융 및 외교정책 부문에서 심화된 SME를 유지했다. 국가 내의 지역적 변이 또한 중요하다.

이 글의 제목은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틀인 동과 서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서(the West)’를 나눠서 봐야 한다. 유럽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유럽 내에서도 지중해권은 북유럽과 다르며, 그리스는 스웨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서구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 또한 국가 내부의 차이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미국 남부(Dixie, 과거의 남부연합)의 농장(plantation) 경제는 산업적인 동북부와 다른데, 이 차이 패턴은 나중에 ‘러스트벨트(rustbelt)’와 ‘선벨트(sunbelt)’의 차이와 겹친다. 시계열적 데이터는 교육, 노동시장, 보건, 안전망 등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남부에 몰려 있는 ‘불이익의 지역적 군집화’를 보여준다(Grusky et al., 2015: 8).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the East)’ 또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차이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작동한다. (동남아시아의) 새끼 호랑이들이 호랑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동남아시아는 발전된 산업화, 낮은 지니계수, 민주주의의 공고화 등의 주요 성과를 이룬 한국과 타이완에 견줄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제도다. 동북아시아의 소위 호랑이 경제는 일본(과 독일)의 모델을 따랐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았다(Nederveen Pieterse, 2015a, 2015b).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동아시아 발전국가(EADS: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낳았다. 동북아시아의 조정 시장경제는 영미식 자본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북서 유럽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동북아시아는 국가의 역할,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 정책 등에서 일본의 모델을 따랐다(금융위기 및 신자유주의적 선회 이후에도 그러했다; Teichman, 2014). 이것은 제도와 정책을 포함하지만 그 연원은 그보다 더 깊다. 포스트봉건사회로서 동북아시아 국가는 사회 통합의 여러 가지 원천을 공유하는바, 이는 이주민사회보다 더 쉽게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를 낳는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는 여러 측면에서 북유럽과 유사하다. 두 지역 모두 포스트봉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의 주요 참화를 경험했다. 북유럽 지역의 지니계수는 0.25(노르웨이)에서 0.30(독일)의 범위 내에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낮은 0.30 대에 있다.

II. 왜 자본주의를 하나로 합하려는가?

“지도는 영토와 같은 것이 아니다” - 요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왜 우리는 단 하나의 표준적인 자본주의의 개념을 떠받치고,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자본주의가 이러한 지배적이고 이념적인 형태로 수렴하기를 기대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주제를 자본주의 대신에 ‘문화’로 가져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할리우드, 디즈니, CNN, 맥도날드, 바비(Barbie) 인형 등과 더불어 초국가적 문화와 ‘글로벌 문화 슈퍼마켓’과 같은 다양한 종류와 층위의 문화를 대개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발리우드, 한류, 일본식 디자인, 터키 드라마, 브라질 삼바, 플라밍고를 알고 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미시적인 지역적 변이뿐 아니라 다양한 하위문화도 인식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혼종적 문화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간 지속되는 브리콜라주(bricolage)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꽤 쉽게 문화의 다양한 층위를 인식한다. 다양한 문화라는 공들 공중 던지기를 하면서 가지고 노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아마도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력하고 지대한 네러티브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한 때 존재했던 웅장한 네러티브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와 칼라일(Thomas Carlyle)의 낭만적 개념, ‘인종’의 개념, 19세기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에서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와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에 이르기까지의 견고한 문명의 유형 등의 네러티브들은 모두 힘을 상실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단지 강력한 활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네러티브도 존재한다. 이 네러티브는 19세기에서 21세기(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등)까지 등장했던 이론들을 포함한다. 또한 관련 패권적 압력도 존재하는데, 이에에는 워싱턴의 기구들, 워싱턴 컨센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뿐만 아니라 매킨지(McKinsey),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와 국제 로펌과 같은 대행업체들도 있다. 금융화, 월가와 국제적 은행은 자본주의 수렵의 또 다른 물이꾼(driver)이다. 골드만삭스는 BRICS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또 다른 물이꾼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가치사슬, 실리콘 벨리 등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이 있다. 기술 발전은 다양한 혁신의 원천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중심적(multicentric)이지만, 그에 대한 소유는 자본주의의 주요 중심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 관해서는 수렵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고, 문화에서는 이제 그 개념은 철저히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렵의 개념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 글로벌 금권정치, 초국가적 자본가 계급, ‘도처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everywhere)’(Peck and Tickell, 2002), ‘다보스맨(Davos man)’ 등이 있다. ‘얼룩덜룩한 신자유주의화(variegated neoliberalization)’(Peck and Theodore, 2007)라는 최근의 개념은 분화를 함의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전체적인 모멘텀에 대한 관념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정착이주민사회는 예외적 사례이며, 포스트봉건사회가 훨씬 더 많고 세계의 다수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라는 이례적인 사회 구조가 마치 자신의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인 것처럼 자본주의의 요건들을 설정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하지만, 그 요점은 전후 미국의 패권과 국제적인 제도 및 레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세기(century)’는 대량생산에서부터 ICT, 유연 생산, 그리고 금융화 같은 변혁에 이르는 주요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예외적인 사회다. 따라서 미국은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월가-재무부-IMF 복합체 등과 같은 글로벌 기준과 규칙을 정립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그것들은 세계 대부분의 사회 구조와 동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었다. 이것이 아프리카와 남미가 워싱턴의 경제 처방을 따른 결과 발전을 ‘상실한 수십년(lost decades)’을 겪은 배경이다. 동북아시아와 최근의 중국처럼 발전에 성공한 사회가 대체로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권 밖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EADS는 많은 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수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전적 수렴 이론은 학습이 수직적으로 일어난다고, 즉 가장 지배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주의 형태를 따라간다고 본다. 그렇지만 학습은 단순히 지배적 자본주의를 추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은 횡적으로,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진다. 개발도상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말레이시아의 ‘동쪽을 보자(Look East)’라는 관점처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동아시아 호랑이 경제와 EADS는 오랫동안 모델이었다. SME는 다른 SME를 학습한다. 한 보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은 테마섹(Temasek)에서 배우고 싶어 한다.” “좋은 역할 모델: 중국은 러시아를 마비시킨 대량 사유화의 함정을 피하면서 사적 소유를 늘리고 있다”(New Straits Times, October 5 2015: B11). 개발도상국의 국부펀드 또한 학습곡선을 서로 공유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낮은 해상도와 높은 해상도의 관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시각은 해상도를 좇으며, 패러다임은 저마다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작동한다. 해상도가 낮은 관점은 입자가 거칠고 획이 굵다. 사회학 일부, 세계체제 분석, 그리고 초국가적 자본주의의 계급(TCC)은 추상성이 높은 수준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면,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은 ‘OECD 자본주의’라는 아주 광범위한 범주를 이용해 모든 선진국 경제는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Streeck, 2011). 이와 대조적으로, 인류학, 두터운 비즈니스 연구(thick business studies), 그리고 많은 지리학은 통상적으로 해상도가 높고 입자가 고운 관점을 취한다. 두터운 묘사는 좀 더 미세한 분석을 의미하며, 따라서 추상화의 수준이 높은 연구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낳는다(Redding, 2005). 이러한 관점은 아래에서 다층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다룰 것이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혼종성(hybridity)이 있다. 몇몇의 경제는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 및 제도가 공존하는 혼종이다. 중국이 그러한데, 국유기업(SOEs: State-Owned Enterprises)의 국가 부문, 빠르게 성장하는 사적 SME, 지방 국가기업, 그리고 모든 부문에 접재되어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등이 혼종되어 있다(Redding and Witt, 2010). 중국, 동아시아 발전국가, 그리고 신흥시장개발국가(EMDC: emerging market developing countries)와 같은 국가들은 시장을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수용은 부분적이고 도구적인 경향이 있다. 시장은 발전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한도에서만 받아들여진다(“시장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시장을 수용하는 것은 이주민사회와 LME의 ‘시장 근본주의’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시장 근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목표가 사회의 목표보다 더 우세하고(“사적인 것은 부유한데 공적인 것은 누추하다”), 그밖에 다른 사회적 가치와 조직 원리가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¹ 낮은 해상도로 접근하는 것은 보통 혼종적 자본주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각 및 분석 도구를 결핍하고 있으며, 혼종적 자본주의들을 한통에 쑤서 넣는 것에 불과하다. 혼종적 자본주의는 또한 수동적인 혼종화(hybridization)와 주체적인 혼종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주체적 혼종화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자본주의를 선택적으로 차용한 메이지 일본이 있다.

III. 복수성(plurality)과 다층적 분석

근대성들이나 자본주의들 같은 복수의 개념들은 각각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

¹ 두 인용 문구는 인도 경제학자 수카모이 차크라바티(Sukhamoi Chakravarty)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 K. Galbraith)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고 있다. 변이형들은 어떤 불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공통적 요소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국가주도 시장경제, 조정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는 모두 시장경제지만, 시장경제가 이해되는 방식은 각각의 경제마다 다르다. 즉, 변이형들 간에 불변적인 또는 공통적인 요소는 그 의미가 가변적이다. 다층적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한 층위에서는 수렴이 일어나고, 동시에 다른 층위에서는 제도와 실천의 분산이 일어나며, 또 다른 층위에서는 동시에 제도와 정책의 새로운 조합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고전적 이론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하나의 이론이나 일반화를 모든 층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은 측정 자의 눈금을 부풀리는 것(scale inflation)이다. 마르크스의 ‘사회 변동의 철칙’과 베버의 합리화는 모든 층위에 걸쳐 그리고 한 영역 전체에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층적 분석의 또 다른 측면은 공간에 따른 구별짓기로, 뭄바이(Mumbai)와 델리(Delhi)에서 조건이 서로 다르고, 구(old) 델리와 뉴델리(New Delhi)에서 서로 다르고, 뭄바이 빈민가와 뭄바이 포시즌즈 호텔 지역이 상이하며, 첸나이(Chennai), 비하르(Bihar), 오리사(Orissa), 아삼(Assam)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글라스 노스(Douglass North)의 경로의존성의 관점에다 경로 저항(path disobedience)을 추가해 볼 수 있다. 성찰의 수준을 높일수록 선택과 행위성의 여지가 커지고, 따라서 결과는 불확정적으로 된다.

IV. 자본주의, 자본주의들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옹호자나 비판자 모두는 ‘글로벌 자본주의’나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와 같이 종종 단수로 자본주의의 범주를 사용한다. 일부 기사는 사실상의 세계지배계급으로 ‘다보스 계급(Davos class)’이라는 개념을 주조하고, 사소한 편차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이들의 지배 아래 있거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자본주의로 수렴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확장의 옹호자들뿐만 아니라 비판자들도 상당수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본주의 목적론(teleology)은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들의 위상이 다양한 경제 조정 제도들의 스펙트럼에서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을 막아버린다. 최근의 추세를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기본적인 차원은 그 추세를 자본주의의 렌즈를 통해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들'의 렌즈를 통해 봐야 하는지 여부다. 신흥 경제의 발흥은 원칙적으로 '세계 체제 안에서 국가의 생성과 몰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Friedman, 1982), 또는 서구 자본주의의 경계 안에서의 재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서구 자본주의의 영역 안에서 발흥하는지 여부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석되어야 할 문제의 일부다.

2008년의 위기는 자본주의들의 변이를 잘 보여준다. 위기의 충격은 전 지구적이지만 획일적이지는 않다. 세계 전역에 걸쳐 사회들은 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두드러지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기회다. 어떤 제도들은 위기에 빠지기 쉽지만, 다른 제도들은 위기에 잘 견딘다. 일례로 2008년 위기와 관련해서 월가 은행과 캐나다 은행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지난 주요 위기인 1997~98년 아시아 위기 동안 영미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로 평가 받았다. 그렇지만 2008년 주가 폭락은 왕년의 모범적 모델의 본부를 박살냈다. 위기 평가들 몇몇은 단일 표준을 가진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서유럽은 국외자로 치부된다. 그렇지만 2008년 위기는 모든 차원에서 영미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냈으니, 그 차원은 이데올로기(자유방임), 패러다임(효율적 시장 이론), 경제학(주주 단기주의(short-termism), 금융화), 정책(탈규제, 자유화), 제도(회계, 신용평가기관, 규제기관, 시장 분석가), 방법론(금융 수학(financial mathematics), 양적 투자), 그리고 문화(보너스 문화, 약탈적 CEO) 등의 차원이었다. 2008년 위기는 1990년대 초의 미국 은행 위기(Savings and Loans), LTCM의 긴급구제, 닷컴기업들의 몰락, 엔론(Enron)과 다른 기업들의 몰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골드만(Goldman) 사건 등 일련의 위기의 일부다(Nederveen Pieterse, 2004, 2008). 주주 원칙(shareholder principle)은 단기주의(높은 주식 등급 및 주식배당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주당순이익의 숫자를 높이는 것)를 부추기고, 금융화는 금융과 경제의 단절을 부추긴다(Dore, 2000).

수십 년간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세도를 부렸다. 근자에 들어 그

혼계는 방향을 바꿨고, 신흥 경제들은 ‘말대꾸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밀실이 아닌 공식적인 연단에서 나오고 있다. 입장은 바뀌었고 다른 상투적인 말이 떠돈다. 즉, 서구가 아시아 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아시아에서 경제적 신중함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예를 들면, Mahbubani, 2009).

‘경제적 자유’나 ‘경쟁 지수’같은 지수들은 통상적으로 단 하나의 자본주의 모델만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2008년 위기가 새롭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의 일반적인 성장 모델이나 국가,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각본이 없는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 Stiglitz, 2006).

이러한 변화는 새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제도는 경제불균형의 주요 부분이자 재균형의 주요 부분으로서 중요하다. 어떤 제도는 위기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제도들은 위기에 잘 견디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정치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데는 제도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이데올로기도 필요하다. 제도적 변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관점은 드러내놓고 또는 암암리에 자본주의를 하나로 묶어 다룬다. 이는 언론 및 경제학의 주류 관점뿐만 아니라 세계 체계 분석과 초국가적 자본주의 계급 관점과 같은 신마르크스주의 관점에도 해당된다. 이 경우에 위기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의 위기가 된다.

이러한 관점이 인정하는 주요 변이는 축적 단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단계들 사이에서, 산업화 및 근대화의 선발 주자와 후발 주자 사이에서나 존재하는 일시적인 또는 역사적인 것이다. 자본주의를 단수로 취급하는 마르크스에서 세계 체계 분석에 이르는 단선적인 자본주의 이론들은 변이를 주로 시간에 따른 변이로 간주한다(중속 자본주의는 주요 예외). 이러한 관점은 지역적 변이를 살피기에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전후 근대화 이론처럼 지역적 변이를 ‘뒤처지는(lagging behind)’ 곳과 ‘따라잡는(catching up)’ 곳처럼 역사적 유형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위기 후 논의가 ‘자본주의의 미래(future of capitalism)’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좀 더 생산적인 논의는 ‘자본주의들의 미래(future of capitalisms)’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덕분에 생존

한다. 자본주의의 유연성은 ‘자본주의들’과 지역적 변이에서 비롯된다(Nederveen Pieterse, 2004: 146).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 내용이 변하고 있으며,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들의 재편과 재배열이다. 이제 이것은 오래된 중심부 바깥의 지역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포괄하는데, 그 지역들은 아시아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에 이르는 신흥경제들이다.

신흥경제들이 영미 자본주의에 편입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들 경제가 주어진 다른 사회 구조와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따라 자본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한다는 점을 과소평가한다. 주류 자본주의 모델이 기업 스캔들, 독성 금융(toxic finance), 허약한 제도, 무능한 거버넌스, 낡은 인프라, 인구 고령화, 거대한 재정적자 및 국가 부채, 그리고 세금 감면에 의해 무력해진 정부 등의 문제로 내파하는 와중에, 동과 남의 몇몇 발전국가 자본주의들은 주류 모델과 대등하게 또는 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로, 이것은 2008년 위기의 여파로 분명해지고 있는 문제다.

아시아 위기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탓으로 돌려졌다. 2008년에는 ‘허용적 자본주의(permissive capitalism)’가 훨씬 더 큰 약점으로 드러났으며 많은 신흥경제에서 확고한 공공 부문은 적절한 정책을 수반하는 한 강점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종류’다.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부와 권력의 집중은 ‘반국가 국가(anti-state state)’의 형성에 기여했다(MacLennan, 1997). 나는 이전에 ‘복수(plural)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사회과학의 속성은 보편적인 것 대 특수한 것, 구조 대 적응 등에서 반복되는 긴장이다. 축적, 합리화, 근대화, 합리적 선택, 신자유주의와 같은 구조적 경향은 종종 차이를 없애버리는 불변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주어지며, 많은 사회과학이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관계를 가늠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근대와 자본주의에 대한 거시적 이론은 모두 보편주의적 접근에 몰두한다. 근대에 대한 고전 이론들은 사회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로부터 근대를 유리(dis-embedding)시키는데(Giddens, 1990), 이러한 관점은 베버(Max Weber, 합

리화), 퇴니에스(Ferdinand Tönnies,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환), 그리고 파슨스(Talcott Parsons, 유형변수)를 관통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이론이 이러한 고전에서 물려받아 간직하고 있는 도식적 이해에까지 이른다(다만 고전 이론들은 핸드북에 소개된 것보다 더 섬세하기는 하다). 근대들에 대한 복수적(plural) 접근은 표의적인(ideographic) 전환을 취하고 실제의 ‘근대들’을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 속에 다시 몰아 넣는다(re-embed).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자본주의 분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만약 자본주의가 ‘기초적인 범주’(Dirlik, 1994)라면, 이는 무엇의 기초인가? 만약 ‘자본주의의 조직 논리’(Harvey, 2005)가 중요한 것이라면, 대체 무엇을 조직하는가? 이데올로기의 정의들 중 하나는 맥락에서 벗어나서 또는 맥락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거시 이론 상의 많은 관점의 결말은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주의를 망설임 없이 거부한다면, 왜 사회학에서는 거대 이론으로 가장하여 이를 수용하려는가? 여러 변이형의 존재는 패러다임의 탈중심화(decentering)를 의미한다. 경제와 연관하여 사회 행동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직 논리(organizing logics)’라는 답은 적절하지 않고 한 가지 답이 아닌 다양한 답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범주로서 ‘자본주의’는 하나의 근사치이자 여러 가지의 조합체다. 자본주의들의 분류들은 근사치들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다양한 유형학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그것들이 ‘유형학의 유형학’이라는 사실을 일부 반영한다. 즉, 국가적 유형학 또는 ‘거대(grand)’ 유형학은 제도 영역 유형학의 조합체(합성물)다”(Jackson and Deeg, 2006: 13).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Braudel, 1984). 이마누엘 월러슈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의 정도(degree)’ 분석을 선택했다(Wallerstein, 2001: 249). VoC 접근은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들을 구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시장경제들(자유시장경제, 조정 시장경제)을 구별해 낸다(Nederveen Pieterse, 2014).

영미 자본주의는 미국과 유럽 간의 마찰과 미국과 신흥경제 간의 마찰을 유발한다. 2015년 미국 의회는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IMF 투표권 할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미국은 TPP와 TTIP를 활용하여 경제적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공하더

라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TPP는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배제한다. 이미 많은 국가 간에 관세가 낮은 지금, 대체로 무역 협정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무역 협정은 거버넌스에 대해 함의를 가지고 있다. 무역 협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기대 이익을 훼손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 아직 다음과 같은 총론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 가지 방식이 모두에게 다 맞겠는가?

V. 다층적 분석

다양한 것을 하나로 합치려는 각본은, 그것이 다보스에서 나온 것이든,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에서 나온 것이든,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것이든, 세계사회포럼에서 나온 것이든 모두 경계해야 한다. 문제의 일부는 단위(unit)의 오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인데, 이것은 경제 데이터가 그렇게 국가별로 집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 단위 안에 존재하는 또는 국가 단위들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계급, 계층, 지역이다. 이것은 쌍방향 도로다. 기술적·사업적·의사소통적 상호 연결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용도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정치적 의사 결정의 단위이며, 법적 틀, 경제 조정의 제도와 공공의 성찰(public reflexivity)의 포럼을 제공한다.

각각의 국가 내부에서 정치적 당파들 사이의 균형은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또한 국제적 추세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신우파(신자유주의), 신좌파(사회주의 및 환경보호), 구좌파(신마오주의), 구우파(민족주의 및 신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색조의 민족주의를 앞세운다(예를 들면, Leonard, 2012).

다층적 접근은 유럽연합의 의사 결정에 관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같은 몇몇 분야에서 표준으로 사용된다. 사회지리학의 멀티스칼라(multi-scalar) 접근은 과정이 진행되는 상이한 공간적 수준(spatial scale)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세계화 과정을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수준에서 접근한다(예를 들

면, Dicken, 2007).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같은 국제기구는 전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처럼 여러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정을 분석하며, 종종 미시지역(micro-regional) 및 도시의 수준에서도 작업을 수행한다.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접근은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 수준들을 결합하여 생산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링을 이해하려 한다(Yeung, 2013).

이와 유사한 관점이 문화 연구에도 있는데, 그것은 많은 이들이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표준화와 ‘맥도날드화(Mcdonalization)’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일부 영역에서만 그리고 특정 정도로만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방적 변이들은 각자의 역동성에 따라 지속되고, 초국가적인 문화 집합체와 결합하며, ‘지구적 다문화’로 묘사되는 다른 것들의 새로운 짜집기(patchwork of difference)와 혼종화 과정을 생성한다(Nederveen Pieterse, 2007; 2015c).

다양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이론은 수준 부풀리기(scale inflation)를 야기하거나, 단 하나의 분석 단위에만 특권을 주는 오류를 범한다. 방법론적 민족주의는 국가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적 세계주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전 지구적 위기, 전 지구적 문화, 전 지구적 근대성, 전 지구적 불평등, 전 지구적 소외, 전 지구적 정책 등에서처럼 전 지구적인 것을 분석 단위로 삼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변이와 역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초국가적 차원을 무시하거나 제외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가? 초국가적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과정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꼭 이것과 저것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가? 더 현명한 선택은 다양한 분석 수준을 고려하는 다층적 분석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만이 타당한 분석 수준은 아니고 기업, 기업들의 결합체, 글로벌 가치망, 기술 등도 모두 타당한 분석 단위가 된다. 표 3은 이를 도식화한 개요다.

상이한 분석틀은 상이한 분석 단위 및 수준에 특권을 부여한다. VoC 접근법은 대개 국가 중심적이며, 글로벌 가치사슬, 초국가적 기업, 국제기구 등의 초국가적 힘의 역할을 덜 부각시킨다. 반대로 초국가적 자본주의의 계급 접근법과 세계체제 분석은 초국가적 수준을 강조하고 국가 간 차이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접근법들은 이러한 분석 수준들의 간극을 메우려고 시도한다(Soeder-

표 3 다층적 분석

층위	역학(dynamics)	분석틀
초국가적	글로벌 가치사슬, 다국적 기업(MNCs), 은행, 국제기구, 국제협약, 기술, 국제표준화기구(ISO), 패권, 계층화(stratification)	세계체제 분석, 초국가적 자본주의 계급, 국제적 조직
	은행, 자본회사, 회계, 로펌, 위험 분석	지역적, 국가적 차이
지역적	디아스포라, 문명, 지역 협력, 지역 개발은행	신지역주의
국가적	제도, 법적 틀, 기업 지배구조, 노사관계, 무역 및 혁신 정책, 통화	자본주의 다양성, 비교자본주의
지방적	클러스터링, 제도적 밀도, 학습 환경, 기업	경제지리학, 인류학, 미시경제학

출처: 저자 작성.

berg et al., 2005).

이것은 또한 수렴과 분기(divergence)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수렴과 분기라는 덩치가 큰 문제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접근법은 다층적 분석이다. 이것은 민족 국가를 쪼개서 분석하되 수렴은 기술, ISO, 물류, 경제특구,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은 특정 수준에서 일어나고, 분기는 경제 조정 제도, 기업 지배구조, 법과 같은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며, 혼합(mixing)은 마케팅, 제품 믹스, 소비, 언론과 같은 또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Nederveen Pieterse, 2007, 2011, 2014).

다층적 과정은 초국가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방적 협력의 다양한 불균등 연합(uneven and combined) 패턴을 보여주는 다층적 결과를 낳는다. 표 4는 이에 대한 개요다.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아세안(ASEAN) 등과 같은 지역적 조직은 그들 각자의 역동성과 의제를 좇는다. 또한 중국의 주장(珠江) 강 삼각주와 북부의 하얼빈 간의 차이나 광둥(廣東)과 충칭(重慶) 간의 차이와 같은 지방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수렴과 분기는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 서로 다른 나라들의 엘리트와 비즈니스 계급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는 불균등 연합 발전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되살려낸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 연구의 성향을 좇아서 거리가 먼 변수들을 결합시키고, 발전 연구의 관점에서 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시나리오를 제

표 4 다층적 역학(layered dynamics)

경향	역학	수준
수렴	기술, ISO, 커뮤니케이션, 생산체계, 물류, 소비	초국가, 기업
분기	국가적·지역적·지방적 문화, 기업 지배구조, 법, 소비	국가, 지역, 지방
혼합	새로운 연합	모든 수준에 걸쳐서

출처: 저자 작성.

시하고 그 개연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개연성에서 이들 변수는 상당히 분명할 수 있지만,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불안정하고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상당 부분 정치적 과정과 정책에 좌우된다. 결국 모든 것은 정치적 투쟁의 문제다. 경제 모델이 사회적 변화를 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다. 플라니가 관찰하였듯, 시장은 배태되어 있다. 시장은 제도와 정치 구조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치적이다. “경제지상주의가 오고 정치는 퇴장한다”(Teivanen, 2002)는 원칙과 다르게 현재 쟁점은 경제학에서 경제지상주의를 빼내고 정치학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다. 즉, 정치를 들고 경제지상주의를 퇴장시킨다. 전반적인 패턴과 경향이 있지만, 변화하는 정치적 조류는 방정식을 바꾼다. 정치를 방정식에서 빼는 것은 불가능하며, 방정식에 포함된 정치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는 영미 자본주의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민영화, 자유화, 그리고 탈규제를 옹호한다(예를 들면, Bhagwati and Panagariya, 2013).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자유화 정책을 옹호했으나 동시에 이를 강력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유능한 국가와 결합시켰다(Fukuyama, 2005). 아시아에서 좌파와 우파 모두는 자본주의를 단수(singular)로 취급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수렴을 내포한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우파에게 득이 되게 작용한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모델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를 예견하고 재촉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좌파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은 악마의 역할을 한다. 초국가적 자본주의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자율성과 주권, 정체성 등을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 말이다.

이 논의의 결론은 단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편주의

는 패권의 시대에 속하는 관점이다. 이데올로기 및 정치 투쟁은 마치 그 투쟁이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와 같은 원칙에 관한 것처럼 진행된다. 하지만 종종 실질적인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처럼 중간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부와 시장의 최적의 혼합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것들은 환경과 맥락에 좌우된다.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다. 정부와 시장의 힘의 어떠한 역할들이 그리고 그 둘의 어떠한 결합이 어느 상황과 맥락에서 최선인가?

이러한 논의는 왜 중요한가?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자본주의를 계속 굴러가게 만든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경제들이 서로 다른 층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동한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 간 제도적 차이 때문에 제도차익거래(*institutional arbitrage*)를 실행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경향과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불평등 패턴의 상당한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체로 제도들에 기인하고 제도들이 정치와 엘리트의 부의 포획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제약하는 정도에 기인한다. 이는 사회적 투쟁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모두 똑같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겠는가?

투고일: 2015년 11월 3일 | 심사일: 2015년 1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5일

참고문헌

Bhagwati, J. and A. Panagariya. 2013. *Why Growth Matters: How Economic Growth in India Reduced Poverty and the Lesson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ublic Affairs.

Braudel, F. 1984. *Civilization and Capitalism, vol 3: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remmer, Ian. 2011. *The End of the Free Market: Who Wins the War between States and Corporations?* New York: Portfolio Trade.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 Dicken, Peter. 2007.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New York: Guilford, 5th edn.
- Dirlik, A. 1994. "The Postcolonial Aura: Third World Criticism in the Age of Global Capitalism." *Critical Inquiry* 20(2), 328-356.
- Dore, Ronald P. 2000. *Stock Market Capitalism/Welfare Capitalism: Japan and Germany Versus the Anglo-Sax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man, E., ed. 1982. *Ascent and Decline in the World-System*. London: Sage.
- Fukuyama, Francis. 2005. *State-building*. London: Profile Books.
- Giddens, A. 1990. *As conseqüências da modernidade*. São Paulo: Editora UNESP.
- Grusky, D. B., M. J. Mattingly, and C. Varner. 2015. "The Poverty and Inequality Report. *Pathways*." Stanford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Special issue State of the States: 3-9.
- Hall, Peter A. and David Sos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son, G. and R. Deeg. 2006. *How Many Varieties of Capitalism: Comparing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es of Capitalist Diversity* (MPIfG Discussion Paper 2). Köln.
- Leonard, Mark, ed. 2012. *China 3.0: Understanding the New China*. London: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MacLennan, Carol A. 1997. "Democracy under the Influence: Cost-Benefit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 In James G. Carrier, ed. *Meanings of the Market: The Free Market in Western Culture*, 195-224. Oxford: Berg
-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hubani, Kishore. 2009. "Lessons for the West from Asian Capitalism." *Financial Times*, March 19: 9.
- Nederveen Pieterse, J. 2004. *Globalization or Empir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7. *Ethnicities and Global Multiculture: Pants for an Octopu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08. *Is There Hope for Uncle Sam? Beyond the American Bubble*. London:

- Zed Books.
- _____. 2011. "Global Rebalancing: Crisis and the East-South Turn." *Development and Change* 42(1), 22-48.
- _____. 2014. "Rethinking Modernity and Capitalism: Add Context and Stir." *Sociopedia Colloquium* (e-journal).
- _____. 2015a. "What Happened to the Miracle Eight? Looking East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63(3), 263-282.
- _____. 2015b. *Goodbye Miracle Eight*. Bangi: UKM Press
- _____. 2015c. *Globalization and Culture: Global Mélange*, third edi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16. "Democracy is Coming." In C. Wungao and B. Rehbein, eds. *Global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Challenges, Responses and Alternative Futures*. London: Palgrave Macmillan (forthcoming).
- Peck, Jamie and Adam Tickell. 2002. "Neoliberalizing Space." *Antipode* 34(3), 380-404.
- Peck, Jamie and Nik Theodore. 2007. "Variiegated Capit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 731-772.
- Piketty, Thomas. 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dding, G. 2005. "The Thick Description and Comparison of Societal Systems of Capit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 123-155.
- Redding, G. and M. A. Witt. 2010. *The Future of Chinese Capitalism: Choices and Cha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ederberg, S., G. Menz, and P. G. Cerny. 2005. *Internalizing Globalization: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the Decline of National Varieties of Capitalism*. London: Palgrave Macmillan.
- Stiglitz, Joseph E. 2006. *Making Globalization Work*. New York: Norton.
- Streeck, Wolfgang. 2011. "The Crises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Left Review* 71, 5-29.
- Teichman, Judith. 2014. "Struggling with the Social Challenges of Globalization: Mexico, Chile and South Korea." In Richard Sandbrook and Ali Burak Güven, eds. *Civilizing Globalization: A Survival Guide*, second edition, 63-

75. Albany, New York: SUNY Press.

Teivanen, Teivo. 2002. *Enter Economism, Exit Politics: Experts, Economic Policy and the Damage to Democracy*. London: Zed Books.

Wallerstein, I. 2001. "Democracy, Capitalism and Transformation." *Palestra en Documenta*, 11.

Yeung, Henry Wai-chung, ed. 2013.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in East Asia: Production Networks, Clusters,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outledge.

Abstract

Comparing Capitalisms, East and West

Jan Nederveen Pieters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This paper discusses varieties of capitalism in relation to regions and countries and types of social formations. Settler immigrant societies resonate with liberal market economies and liberal democracy. Post-feudal societies are on the verge of heading towards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social forms of capitalism and variants of social democracy.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sk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ular (capitalism) and plural (capitalisms) conceptualizations and suggests a layered analysis to accommodate common as well as variant components, while noting that among the variants the invariant or the common element is itself a variable in meaning. Thus while liberal, coordinated and state-led market economies are all market economies, the way the market economy is understood differs in each setting.

Keywords | varieties of capitalism, social formations, Asia, layered analysis